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 음운이란 말의 ()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이다.
- '물-불'과 같이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이라고 한다.
- 음운의 종류에는 ()음운, ()음운이 있다.
- 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를 그을 수 있는 음운으로 ()라고도 한다.
- 분절 음운에는 (), (), ()이 있다.
-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비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음운으로서 ()라고도 한다.
- 비분절 음운에는 고저, 강약, 장단이 해당되는데, 현대 국어에는 ()이 있다.
- 국어의 장음은 원칙상 단어의 ()에만 올 수 있다.
- 국어의 자음 체계는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인 ()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인 ()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누어진다.
- 국어의 자음 체계 표를 채우시오.

6.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특성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 받지 않으며) 홀로 발음(될 수 있음 / 되지 못함)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 받지 않으며) 홀로 발음(될 수 있음 / 되지 못함)
반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 받지 않으며) 홀로 발음(될 수 있음 / 되지 못함)

- 비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음운으로서 ()라고도 한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안울림소리	파열음	평음 (예사소리)				
		경음 (된소리)				
		격음 (거센소리)				
	파찰음	평음				
		경음				
		격음				
마찰음	평음					
	경음					
울림소리	비음					
	유음					

- 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혀의 ()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이 평평한지 둥근지에 따라 분류된다.

13. 국어의 단모음 체계 표를 채우시오.

혀의 앞뒤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14. 이중 모음은 ()과 ()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j-계 이중 모음과 w-계 이중 모음이 있다.

15.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이라 하며 음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 (), (), ()으로 구분된다.

16. 교체는 한 음운이 그와는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 (), (), (), ()가 있다.

17.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 , , , ,)뿐으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18. 비음화는 (, ,)이 비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인 비음 (, ,)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19. 유음화는 ()이 ()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로 바뀌는 현상이다.

20.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인 형태소가 모음 ()나 반모음 'j'로 시작되는 ()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이 되거나, 'ㄷ' 뒤에 () 형태소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이 되는 현상이다.

21.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받침 (, ,) 뒤의 경음화,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경음화,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가 있다.

22. ()은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으로 음운이 바뀌는 현상이 아니므로 음운 변동에 속하지는 않는다.

23.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으로 () 첨가와 () 첨가가 있다.

24. 'ㄴ' 첨가는 앞말이 ()으로 끝나고 뒷말이 ()나, 반모음 'j'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서 덧붙는 현상이다.

25. 반모음 첨가는 ()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니다.

26.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 (), ()이 있다.

27.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28. 자음 탈락에서 () 탈락은 () 형태소의 끝소리 ()이 'ㄴ, ㄷ, ㅅ, ㅈ' 등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29. 자음 탈락에서 () 탈락은 어간의 끝소리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이다.

30. 모음 탈락에서 () 탈락은 어간 말의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31. 모음 탈락에서 () 모음 탈락은 어간 말 모음
과 어미 첫 모음이 ()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32.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서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가 있다.

33.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ㅎ’과 ‘ㅂ, ㅈ, ㅊ, ㅌ’이
결합하여 각각 (, ,)으로 되는 현상이다.

***교재 변형 문제**

1. <보기>의 ㉠~㉣은 어떤 음운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보기>

㉠ ‘ㄷ’는 ‘ㄱ’에 비해 발음할 때 ()이 뒤에 있고 ()는 높으며 ()은 동근 모음이다.

㉡ ‘ㅙ’는 ‘ㅓ’에 비해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에 있고 혀의 최고점의 높이는 () 입술 모양은 () 모음이다.

㉢ ㅌ은 혀의 윗부분이 치조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나오는 ()이다.

㉣ ㄱ은 혀의 뿌리 부분이 연구개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나오는 ()이다.

㉤ 장단은 현대 국어 표준 발음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 음운이다.

<보기>

구개음화, ‘ㄴ’ 첨가, 경음화(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

2.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자료>의 ㉠~㉣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을 쓰시오.

<자료>

㉠ 꽃잎 [꼰닙]

㉡ 넓적하다 [넙쩌카다]

㉢ 들끓는 [들끌른]

3. <자료>의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료>

• 흠이불 → 흠이불 → 흠니불 → [흔니불]
 ㉠ ㉡ ㉢

• 읊조리다 → 읊조리다 → 읊쪄리다 → 읊조리다
 ㉣ ㉤ ㉥

•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

4. <자료>의 ㉠~㉣은 음운 교체의 예이다. 음운 교체 중 어떤 현상에 해당하는지 각각 쓰시오.

<자료>

㉠ 밖 → [박]

㉡ 받는다 → [반는다]

㉢ 칼날 → [칼랄]

㉣ 굳히다 → [구치다]

㉤ 할 것을 → [할꺼슬]

5. <자료>의 ㉠~㉣은 음운 변동의 예이다. 음운 변동 중 어떤 현상에 해당하는지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료>

㉠ 입학 → [이팍]

㉡ 활 + 살 → [화살]

㉢ 가- + -아서 → [가서]

㉣ 젊다 → [점:따]

㉤ 되어 → [되어/되여]

㉥ 숨이불 → [숨:니불]

<조건>

‘㉠은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와 같은 형태로 서술할 것.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성과 음운은 둘 다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로,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다르다. 음운은 이러한 음성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이다. 즉, 한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의미를 변별해 주는 기능을 할 때, 이것을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를 [kamgi]로 발음하는데, 영어권 화자들은 첫 번째 글자의 ‘ㄱ’은 무성음 /k/로, 두 번째 글자의 ‘ㄱ’은 유성음 /g/로 다르게 인식한다. 우리가 ‘감기’의 두 개 ‘ㄱ’을 동일한 음운인 /ㄱ/으로 인식하는 것과 영어권 화자들이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음운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서로 다른 음성일 뿐, 서로 다른 음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6.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고기’의 두 가지 ‘ㄱ’ 소리
 ㉡ ‘달, 딸, 탈’의 ‘ㄷ, ㅌ, ㅌ’ 소리
 ㉢ ‘밭, 벌, 불’의 ‘ㅈ, ㅉ, ㅉ’ 소리
 ㉣ ‘부부’의 두 가지 ‘ㅂ’ 소리

- ① ㉠ : 음성으로는 두 가지, 음운으로는 한 가지가 인식되는 사례이다.
- ② ㉡ : 초성에 쓰인 각각의 음운이 의미를 변별해 주는 사례이다.
- ③ ㉢ : 세 개의 다른 소리가 머릿속에서 같은 음운으로 인식되는 사례이다.
- ④ ㉣ : 하나의 음운이 위치에 따라 다른 음성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⑤ ㉠, ㉣은 음성의 차이만으로는 의미의 변별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7.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모든 음절에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인 단모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가짐.

- ① 영감 ② 열매 ③ 야영 ④ 유리 ⑤ 여유
- 학습자료의 모든 것, 국내 EBS 분석, 변형문제 1위
 www.namuacademy.com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음은 발음할 때 목 안 또는 입안의 어떤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공기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혀져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이다.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순음), 혀끝이 윗잇몸에 맞닿아 나는 잇몸소리(치조음),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후음)가 있다. /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파열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마찰음,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파찰음이 있다.

한편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비음(콧소리),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유음(흐름소리)이 있다.

(나) 모음과 자음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음운이다. 그런데 어떤 단어들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일부가 바뀌어도 의미가 변한다기보다는 어감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어감의 분화라고 한다.

모음의 경우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은 밝고 날카롭고 가벼운 느낌을 줌에 비해, ‘ㅓ, ㅕ’와 같은 음성 모음은 어둡고 둔하고 크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자음의 경우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순으로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ㄱ, ㄷ’ 같은 예사소리보다는 ‘ㄱ, ㄷ’ 같은 된소리가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또 된소리보다는 ‘ㅋ, ㅌ’ 같은 거센소리가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8. (가)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ㄹ, ㄴ’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동일한 자음이다.
- ② ‘ㄱ’과 ‘ㅇ’은 조음 위치는 같지만 조음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③ ‘ㅈ, ㅊ’은 센입천장에서 나는 소리이면서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④ ‘ㅅ, ㅆ’은 공기가 발음 기관의 좁은 틈 사이로 나오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이다.
- ⑤ 국어의 자음 체계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위치와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한다.

9. (가)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빈칸을 채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음방법	조음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두 입술	혀끝, 윗잇몸	혓바닥, 센입천장	혀 뒤, 여린입천장	목청사이
파열음	예사소리	①				
	된소리					
	거센소리					
파찰음	예사소리			③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	예사소리		②			⑤
	된소리					
	비음				④	
	유음					

- ① ㅂ, ㅃ, ㅍ ② ㅅ, ㅆ ③ ㅈ, ㅉ, ㅊ
 ④ ㄴ ⑤ ㅎ

10. (나)에서 설명하는 현상이 나타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깡충깡충 / 꺽충꺽충
 ② 방글방글 / 몽글몽글
 ③ 살금살금 / 슬금슬금
 ④ 풍당풍당 / 풍덩풍덩
 ⑤ 팔랑팔랑 / 펄럭펄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인 모음과 자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국어의 비분절 음운으로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단의 문제는 모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절 단위에서 실현된다. 장음(긴소리)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본래 길게 발음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억양은 소리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하게 하는 것으로, 문장의 끝을 높이는냐, 낮추는냐, 평탄하게 하는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11.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비분절 음운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장단과 억양이 있다.
 ② 소리의 장단은 음절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③ 억양은 문장의 끝에서 실현되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④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처럼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다.
 ⑤ 같은 분절 음운을 사용하여 표기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비분절 음운에 의해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12. 이 글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보기>와 유사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께서 도자기를 굽고 계신다.

- ① 말을 타 보았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니?
 ② 밭에 밭을 구워 먹으니 운치가 있구나.
 ③ 돌다리 위에 다리가 네 개인 동물이 보인다.
 ④ 삼청동 카페 거리는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다.
 ⑤ 눈이 눈에 들어가서 ‘앗, 차가워!’ 소리를 질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다른 두 소리가 만났을 때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비슷하면 발음하기가 쉬워진다. 이것을 동화 현상이라 하는데, 이는 발음에서 ㉠노력 경제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물’을 발음할 때 ‘ㄱ’이 뒤에 오는 ‘ㄹ’을 만나면 앞의 소리는 뒤의 비음을 닮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소리가 난다. 두 소리가 모두 비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발음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축약이나 탈락도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다. 이에 비해 ㉡표현 효과의 원리는 발음상 힘이 들더라도 청각 효과를 통해 일정한 의미를 강조하려는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나 사잇소리 현상 같은 이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밤길’을 발음할 때 ‘ㄱ’을 된소리로 바꾸어 [밤꺠]로 발음하는 것이 바로 표현 효과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13.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의 표기와 표준 발음은 일치한다.
- ② 언어 사용자의 수리적인 발음을 모두 음운 변동 규칙으로 인정한다.
- ③ 발음상 힘이 드는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음운의 변동은 발음의 편의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⑤ 표현 효과를 위해서라면 언어 사용자가 임의로 음운 변동을 실행할 수 있다.

14. ㉠과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밤물’을 발음할 때 ‘ㅂ’이 ‘ㄹ’을 닮아 ‘ㄹ’으로 바뀌어 [밤물]로 소리 나는 것
- ② ㉠ : ‘설날’을 발음할 때 ‘ㄴ’이 선행하는 받침 ‘ㄹ’을 닮아 ‘ㄹ’로 바뀌어 [설랄]로 소리 나는 것
- ③ ㉠ : ‘미닫이’를 발음할 때 ‘ㄷ’이 ‘ㅣ’의 발음 위치와 닮아가기 위해 ‘ㅈ’으로 바뀌어 [미다지]로 소리 나는 것
- ④ ㉡ : ‘꽃길’을 발음할 때 ‘ㅈ’이 ‘ㄱ’을 닮아 [꼭꺠]로 소리 나는 것
- ⑤ ㉡ : ‘문법’을 발음할 때 ‘ㅂ’이 된소리로 바뀌어 [문뻬]로 소리 나는 것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 한다. 음운 변동은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라, 변동의 대상에 따라, 인접 음운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음운 변동의 결과에 따른 음운 규칙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앞’을 발음하면 [압]으로 소리가 나서 ‘ㅍ’이 ‘ㅂ’으로 바뀐다.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을 생략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닭’을 발음하면 [닥]으로 소리 나는데, 음절의 끝에 오는 두 개 자음 중 ‘ㄹ’이 탈락한 결과이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숨이불’은 [숨 : 니불]로 발음되어 ‘ㄴ’이 첨가되었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한 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농다’가 [노타]로 발음되어 ‘ㅇ’이 ‘ㄷ’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었다.

또 음운 변동은 자음이 변하느냐 모음이 변하느냐에 따라 자음 변동과 모음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을 [압]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자음 변동, ‘오시오’를 [오시요]로 발음하는 것은 모음 변동의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운 변동은 인접 음운과의 관계에 따라 동화(同化)와 이화(異化)로 나눌 수 있다. 동화는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 가는 현상이고 이화는 인접하는 두 개의 음운 가운데 하나가 음운 성질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현상이다. ‘국민’을 [궁민]으로 발음하는 것은 동화, ‘초점’을 [초쩨]으로 발음하는 것은 이화의 예에 해당한다.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고, 이화 현상에는 ‘도로’, ‘하 고’를 [도루], [하구]처럼 발음하는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나 ‘나뭇잎, 콧등’을 [나문닙], [콘똥/코똥]으로 발음하는 데서 알 수 있는 사잇소리 현상 등이 있다.

15.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 변동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 ② 표기에 없던 소리가 발음할 때 덧나는 현상을 ‘첨가’라고 한다.
- ③ 인접하는 음운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동화’라고 한다.
- ④ 한 음운이 발음할 때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교체’라고 한다.
- ⑤ 겹받침의 경우에 발음할 때 하나가 선택되는 현상은 ‘탈락’에 속한다.

16.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값[갑]	㉡ 부엌[부억]
㉢ 종로[종노]	㉣ 맨입[맨닙]
㉤ 돼[돼:]	㉥ 밥물[밤물]

- ① ㉠은 음절 끝에 오는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한 예로 ㉡과 동일한 조건에서 음운 변동을 보이고 있다.
- ② ㉢과 ㉣은 비음이 인접하는 음운을 같은 성질의 음운으로 바꾼 교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의 본말은 '되어'인데 세 개의 음운이 하나로 축약된 사례이다.
- ④ ㉥은 ㉢과 같은 종류의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변동의 원인이 되는 음운의 위치가 다를 뿐이다.
- ⑤ ㉠~㉥은 모두 단어의 의미가 지닌 인상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예이다.

17. 아래는 이 글의 내용을 학생이 정리한 표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준	변동 유형	예	특징
변동의 대상	자음 변동	앞 → [압]	㉠
	모음 변동	오시오 → [오시요]	㉡
인접 음운과의 관계	동화 현상	국민 → [궁민]	㉢
		초점 → [초점]	㉣
	이화 현상	콧등 → [꼰똥/코똥]	㉤

- ① ㉠ : 음절 끝의 자음 /ㅍ/이 /ㅂ/으로 교체됨
- ② ㉡ : /ㅣ/로 인해 변동을 겪은 이중 모음 발음을 허용함
- ③ ㉢ : 파열음 /ㄱ/이 후행하는 비음 /ㄹ/의 영향으로 인해 비음인 /ㅇ/으로 변동됨
- ④ ㉣ : 한자 합성어에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남
- ⑤ ㉤ : 우리말 합성어에서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 일어남

18. <보기>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뭇잎 > [나뭇닙] > [나뭇닙]

- ① 파열음 'ㄷ'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 현상이 나타나 있다.
- ② '흙이불'을 발음할 때에 <보기>에서 보이는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난다.
- ③ 이 낱말에 조사가 결합하여 '나뭇잎에'와 같이 쓰일 때는 교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음절의 끝에서 발음할 수 없는 'ㅅ'과 'ㅇ'을 대표음인 'ㄷ'과 'ㅂ'으로 교체한 현상이 나타나 있다.
- ⑤ '나무+잎'의 구성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정한 소리가 첨가되며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19.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개의 자음 중의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동화되는 현상.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동화되는 현상.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동화되는 현상.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① ㉠ : 옷감[올감]
- ② ㉡ : 각막[강막]
- ③ ㉢ : 칼날[칼랄]
- ④ ㉣ : 달맞이[달마지]
- ⑤ ㉤ : 평가[평까]

20. <보기>의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따르--+아 → 따라[따라]
(나) 앉았다 섰다 마음이 변한다.	• 서--+었다 → 섰다[섰따]
(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 날--+는 → 나는[나는]
(라)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	• 솔+나무 → 소나무[소나무]
(마) 좋은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 좋--+은 → 좋은[조은]

- ① (가) : 두 개의 모음이 충돌하여 약한 성질의 모음이 탈락하였다.
- ② (나) : 동일한 음운이 만나서 제3의 음운으로 축약하였다.
- ③ (다) : ‘ㄹ’이 같은 성질의 음운을 만나서 탈락하는 현상을 반영했다.
- ④ (라) : 자음끼리 연쇄하여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었다.
- ⑤ (마) : 두 개의 음운 가운데 음가가 없는 음운이 탈락하였다.

21. 아래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	음운 변동 과정
콧물	코+물(콧물) > [콘물] > [곤물]
알약	알+약 > [알낙] > [알락]

- ① 후행하는 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
- ② 선행하는 음운이 후행하는 음운에 닮아 가는 현상
- ③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 그 사이에 특정한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
- ④ 동일한 음운이 연쇄될 때 성질이 약한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는 현상
- ⑤ 음절의 끝소리에 쓰인 자음을 특정한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정답 및 해설

*개념 확인 문제

- <답> 뜻
- <답> 최소 대립쌍
- <답> 분절, 비분절
- <답> 경계, 음소
- <답> 자음, 모음, 반모음
- <답> 받으며, 되지 못함 / 받지 않으며, 될 수 있음 / 받지 않으며, 되지 못함
- <답> 의미, 운소
- <답> 장단
- <답> 첫머리
- <답> 조음 위치, 조음 방법
- <답>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양순음	치조음				
안울림소리	파열음	평음 (예사소리)	ㅂ	ㄸ		ㄱ	
		경음 (된소리)	ㅃ	ㄸ		ㄲ	
		격음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12. <답> 최고점, 최고점, 입술 모양

13. <답>

혀의 앞뒤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ㅑ	ㅊ	ㅓ	ㅆ
	저모음	ㅕ		ㅗ	

14. <답> 단모음, 반모음

15. <답> 음운 변동, 교체(대치), 첨가, 탈락, 축약

16. <답>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된소리되기)

17. <답> ㄱ, ㄴ, ㄷ, ㄹ, ㅁ, ㅂ, ㅇ

18. <답> ㄱ, ㄷ, ㅂ, ㅇ, ㄴ, ㅁ

19. <답> ㄴ, ㄹ, ㄷ

20. <답> ㄷ, ㅌ, ㅍ, ㅊ, ㅆ, ㅈ, ㅊ, ㅆ, ㅈ

21. <답> ㄱ, ㄷ, ㅂ

22. <답> 연음

23. <답> ㄴ, 반모음

24. <답> 자음, ㅍ

25. <답> 모음, 단모음

26. <답>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27. <답> 2(두)

28. <답> ㄹ, 실질, ㄹ

29. <답> ㅎ, ㅎ, 형식

30. <답> ㅡ, ㅡ

31. <답> 동일, 동일

32. <답> 격음화(거센소리되기)

33. <답> 표, 트, 크, 츠

***교재 변형 문제**

1. <답> ㉠ 혀의 최고점, 혀의 최고점의 높이, 입술 모양, ㉡ 앞, 낮으며, 평평한, ㉢ 격음, ㉣ 경음, ㉤ 비분절

2. <답> 교체

㉠: 교체, 첨가

㉡: 탈락, 교체, 축약

㉢: 탈락, 교체

3. <답>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 비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경음화(된소리되기), ㉥ 자음군 단순화, ㉦ 격음화(거센소리되기), ㉧ 구개음화

4. <답>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경음화(된소리되기)

5. <답> ㉠은 축약 중 격음화(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은 탈락 중 자음 탈락(ㄹ 탈락)에 해당한다. ㉢은 탈락 중 모음 탈락(동일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은 탈락 중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은 첨가 중 반모음 첨가에 해당한다. ㉥은 첨가 중 'ㄴ' 첨가에 해당한다.

6. <답> ㉢

'ㅏ, ㅑ, ㅓ' 세 개의 다른 소리는 의미를 변별해 주는 각각의 음운이다.

7. <답> ㉢

'야영'의 경우 첫음절의 'ㅑ'가 반모음 'ㅣ [j]+'ㅏ'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음절의 'ㅑ'가 반모음 'ㅣ [j]+'ㅑ'로 이루어져 있어 <보기>의 조건에 맞는 예가 된다.

8. <답> ㉠

'ㅁ, ㅂ'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조음 위치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보인다. 다만 'ㅁ'는 비음이고 'ㅂ'는 파열음이기 때문에 조음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9. <답> ㉣

비음이면서 공기의 흐름이 여린입천장을 통해 나는 음운은 'ㅇ'이다. 'ㄴ'의 조음 위치에 따른 구분은 '잇몸소리'이다.

10. <답> ㉡

어감의 분화는 발음할 때 느낌의 차이를 나타낼 뿐, 의미를 변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방글방글'과 '몽글몽글'은 의미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의 짝일 뿐만 아니라 각각에 쓰인 모음들의 성질도 동일하여 어감의 분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11. <답> ㉡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소리에서 나타나고, 본래 길게 발음되던 단어도 음절 순서가 두 번째 이하로 바뀌면 짧게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에 상관없이 소리의 장단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답> ㉢

'돌다리'의 '다리'와 '다리'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 모두 짧게 소리 나기 때문에, 소리의 장단으로 의미를 구별하는 <보기>의 사례와 유사하지 않다. <보기>와 ㉠, ㉡, ㉣, ㉤은 모두 앞 단어는 짧게, 뒤 단어는 길게 발음함으로써 의미가 변별된다.

13. <답> ㉣

본문에서 언급한 '노력 경제의 원리'와 '표현 효과의 원리'는 음운의 변동이 발음의 편의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위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단어의 표기는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언어 사용자가 개인의 습관대로 발음하는 것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발음상 힘이 들더라도 청각 효과를 통해 일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 언어 사용자가 임의로 음운 변동을 실현하면, 규칙을 알고 있는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14. <답> ㉣

'꽃길'을 [꼭길]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예로, ㉡과 관계없는 개인의 발음 습관이다.

15. <답> ㉢

인접한 음운들이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화(異化)'이다.

16. <답> ④

㉠과 ㉡은 모두 '비음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은 'ㅇ'으로 인해 후행하는 음운이 변동하였고 ㉠은 'ㄹ'으로 인해 선행하는 음운이 변동한 예이다.

① ㉠은 받침에 있는 두 개의 음운 중 하나가 탈락한 현상을, ㉡은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② ㉡은 ㉠과 달리 교체 현상이 아니라 음운의 첨가 현상을 보이는 사례이다.

③ ㉠에서는 'ㄱ'과 'ㄴ' 두 개의 음운이 축약된 현상이 나타나 있다.

⑤ ㉠~㉡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은 노력 경제의 원리와 표현 효과의 원리를 모두 따르고 있다.

17. <답> ⑤

㉠은 우리말 합성어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 사례이다.

18. <답> ③

'나뭇잎에' 역시 [나문니페]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ㅅ'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는 과정과 사잇소리 'ㄴ'으로 인해 파열음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19. <답> ④

'달맞이'를 [달마지]로 발음하는 것은 받침의 'ㄷ'을 뒤 음절의 초성에 그대로 이어서 소리 낸 것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20. <답> ①

(가)에는 '따르-'의 'ㄹ'과 연결 어미 '-아'의 'ㅏ'가 만나 성질이 약한 모음 'ㄹ'이 탈락하여 '따라'가 된 현상이 나타나 있다.

② (나)는 동일한 음운 'ㄴ'이 만나 둘 중의 하나가 탈락한 사례이다.

③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는 사례인데 이 두 음운을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ㄹ'은 'ㄴ' 이외에 'ㄷ, ㅅ, ㅈ' 앞에서도 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음운이 인접하여 탈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설명이다.

④ 자음 'ㄹ'과 'ㄴ'이 연쇄하여 앞의 'ㄹ'이 탈락한 예이다.

⑤ 음가가 없는 'ㅇ' 대신 'ㅎ'이 탈락하였다.

21. <답> ③

'콧물'과 '알약'을 발음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음운의 '첨가'이다.